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6년 8월 7일(주일) 제1111호



“하 목사님 그립습니다”

하용조 목사 소천 5주기 추모예배 ... “비전 이어갈 것” 유가족, 국내외 내빈, 교회리더십, 성도 등 1,500명 참석

온누리교회가 하용조 목사 소천 5주기 추모예배를 드리면서 고인을 기억하고, 뜻을 이어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

지난 8월 2일 Acts29비전빌리지 하용조 목사 기념관 기념채플과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

당에서 ‘하용조 목사 소천 5주기 추모예배’를 드렸다. Acts29비전빌리지 하용조 목사 기념관 기념채플에서 드린 추모예배에는 3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용국 장로의 대표기도, 이재훈 담임목사의 환영인사, 반태효 목사(방주교회)

의 설교, 유가족 인사,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그 자리에서 이재훈 담임목사는 “다시 한 번 하용조 목사님의 비전을 이어갈 것을 결단했다”고 말했고, 하용조 목사의 장남 하성석 형제는 “멀리까지 아버지를 기억하기 위해 오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인사했다.

같은 날 저녁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드린 추모예배에는 하용조 목사 가족, 국내외 내빈, 성도 등 1천 2백 명이 참석했다. 추모예배는 당

회서기 정과종 장로의 대표기도, 오오카와 쓰구미치 목사(야마토 갈보리 채플) 설교, 유가족 인사, 온누리교회 교역자 합창 순으로 진행됐다.

추모예배에 참석한 허귀재 선교사는 “하용조 목사님의 선교정신을 이어받아 끝까지 일본선교에 헌신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관련기사 4-5면〉

/ 정현주, 이소정 기자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님께

그동안 성도여러분들도 안녕하셨지요?

주님 안에서 말이예요. 주님 안에 늘 거하시면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동창이 밝아오면 창문을 열듯이 우리 모두가 동쪽을 향하여 살고 있었으면 해요. 제가 사는 쿠사츠(일본) 집의 앞면은 정동향이에요. 해가 뜨는 모습이 아름답고, 그 동이 뜨는 빛이 너무 세서 저절로 잠이 깨게 되어 있어요.

“주님, 오늘도 새롭고도 아름다운 날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즈음에는 미국 서부에 있는 고산지대의 사막

으로 이사를 갔어요. 제 침실은 정동향이에요. 너무나도 예쁜 해가 뜨고, 저녁마다 석양이 하도 예뻐서 오후만 되면 가슴이 뛰곤 하죠. 비록 모래땅이긴 하지만 몇 가지 맛있는 과일나무가 있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살구, 돌 복숭아, 복숭아, 미국배, 무화과, 석류 등 돌아가면서 따먹으면서 지내고 있어요.

목사님이 떠나신 후에는 비서와 살고 있어요. 우리 비서는 참 침착하고도 건강해요. 예쁜 꽃도 심어서 보라고 하고요. 야채도 잘 길러서 자라나는 모습을 보여주곤 하죠. 저는 현미와 미역, 무 등 순한 음식을 좋아해요. 비서가 주먹밥을 맛있게 만들어 주면 소풍도 가서 산과 호수도 보면서 돌아 다녀요.

하나님은 참으로 크신 분이면서도, 우리들의 사정을 자세히 아시지요.

목사님이 천국으로 떠나신 후 5년 동안 살아온 것이 민망스럽고 부끄러울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관심과 사랑이 지극하시다는 것이예요. 그 분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그 분은 접근하기 어려울 만큼

거룩하시면서도, 유머도 있으시고 저와 늘 소통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예요. 이제는 기도를 깊이 해야겠다는 욕망을 버렸어요. 매일 매일 일상의 대화를 그 분과 나누면서 재미있게 지내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사과도 드리곤 한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자꾸 단순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물건도 좀 버리고, 집도 깨끗이 치워놓고, 식사도 간단히 하면서 기도생활도 단순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 말씀한 구절씩이라도 묵상해 보면 도움이 되던데요. 인생을 화려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조용히 살려고 노력해 보면 답이 나와요.

지난 5년 동안 매일매일 하용조 목사님을 그리워하면서 살아왔어요. 그 분은 참 좋은 분이셨다는 것을 절감하면서요. 때로는 아직도 저에게 기묘한 지혜를 내려주시기도 하세요. 언제나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 하용조 목사의 아내 이형기 드림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

방배동에 위치한 국대떡볶이 본사 회의실 벽면에 붙어있는 슬로건이다. 국대떡볶이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었다. 유명 프랜차이즈 기업으로도 잘 알려진 국대떡볶이 대표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는 노점상에서 시작해 전국에 점포 90여 개를 만든 하나님의 사람이다.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의 삶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의 새로운 비전

특유의 경상도 사투리로 인사하면서 명함을 건네는 모습이 참 친근했다. 국가대표 떡볶이의 준말 ‘국대떡볶이’는 2010년 이화여대 노점상으로 시작했다. 지금은 전국에 점포가 90개가 넘는다. 이른바 성공신화를 썼다. 김상현 대표는 2년 전 하나님을 만났다. 이젠 선교사와 함께 미국창조과학탐사를 다녀온 이후 인생이 달라졌다.

김상현 대표는 경상북도 대구에서 태어났다. 형제 중 막내로 태어난 그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다. 어려서부터 운동을 좋아했다.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탄 적도 있지만 선수를 할 정도의 실력은 아니었다. 공부도 중하위권을 맴돌았다. 공부도, 운동도 딱 중간만렙만 했다. 대구대학교 체육학과에 입학해 평범한 대학 생활을 보냈다. 그의 삶에 전환기가 찾아온 것은 전역 이후였다. 어린 시절부터 중개업을 하고 싶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캐나다로 갔다. 안락한 삶을 누리는 것이 꿈이었다.

노점에서 전국에 점포 90개로 성장!

스물세 살에 캐나다에서 장사를 시작했다. 신발도 팔고, 배달업도 해보고, 군고구마도 팔았다. 안 해본 장사가 없을 정도였다. 어학코스도 밟고, 대학교에도 지원했다. 합격통지를 받았지만 자신이 없어 입학을 취소했다. 외국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면서 공부까지 할 열정도, 자신도 없었다. 4년 뒤 한국으로 돌아왔다. 한국에 와서는 의류사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았다. 번번이 실패했다. 금융권에서 사업자금으로 빌린 빚만 5천만 원이 넘었다.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차에 우연히 떠올린 것이 바로 떡볶이다. 평소 좋아하고 즐겨먹던 떡볶이를 사업 아이템으로 삼았다. 초등학교 시절 학교 앞에서 사먹던 떡볶이 맛을 그대로 재현해낸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확신했다.

1년 동안 전국의 유명 떡볶이집을 찾아다녔다. 무턱대고 “떡볶이 장사를 하려는데 노하우 좀 알려 달라”고 매달렸다. 문전박대 당하기 일쑤였다. 그러던 중에 대구에서 떡볶이를 팔던 한 아주머니로부터 기술을 전수 받았다.

이제는 상점을 찾기 위해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다. 상점을 얻을 돈이 없어서 일단 여성들이 많은 장소를 탐색해보기로 했다. 여성 소비자들을 공략하면 성공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숙명여대를 거쳐 이화여대 앞까지 갔다. 그 자리에서 노점상 하는 상인들이 그렇게 멋있어 보일 수 없었다. 그렇게 수중에 있는 돈을 털 털어 노점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상호명을 결정지를 차례였다. 막상 떠오르는 단어가 없었다. 그러던 중에 친구와 대화를 하는데 친구가 우연히 “국가대표, 국대”라는 단어를 여러 번 썼다. ‘국대’라는 단어가 입에 착 감기는 것 같았다. 그렇게 붙인 이름이 바로 ‘국대떡볶이’다.

스물아홉 살 청년 김상현 대표가 이화여대 앞 포장마차에서 떡볶이 장사를 시작했다. 하얀색 바탕에 궁서체로 ‘국대떡볶이’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국가대표’의 마음으로 떡볶이를 만들고자 태극기까지 내걸었다. 자연스럽게 이화여대 앞을 오가는 여대생들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기 시작했다. 20대 패기 넘치는 청년들이 떡볶이를 파니 손님들의 반응이 더 좋았다. 그렇게 장사를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가로수길 인근에 첫 번째 점포를 열게 되었다. 하루 20~30만 원이던 매출이 180~190만원으로 8배 가까이 급증했다. 그때부터 국대떡볶이의 이름을 내걸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다

김상현 대표는 성공신화를 꿈꿨다. 안 읽은 자기계발서와 경영서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 같았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친구를 따라 교회에 나가게 됐다. 난생 처음이었다. 교회 다니는 것을 종교생활의 일부라고만 생각했다. 기독교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했다. 그를 교회에 데려간 친구가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는 것을 권했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으면서 “왜 나에게 시간을 들이면서까지 애써 가르쳐주지?”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는 대가없이 잘해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교회에 다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예수님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의 재미가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2014년부터 CCF에서 활동하게 됐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강한 그에게 지인이 CCF를 추천해줬다. CCF에서 예수님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을 공부했다. 예수님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서 김하중 장로의 강의도 듣고, 중보기도도 배웠다. 그렇게 신앙이 조금씩 성장했다. 그해 6월 여름방학에 ‘미국 창조과학탐사 비전트립’을 가게 됐다. 7박 8일 동안 짧으면 서도 긴 여정이 되리라고 생각했다. 사실 그는 다른 마음을 품고 창조과학탐사에 참가한 것이다. 미국의 식당들을 둘러보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창조과학탐사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젠 선교사의 강의를 듣고, 자연을 보면서 성경에 나온 창조 이야기가 믿어지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완전히 인생이 탈바꿈하기 시작했다.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사실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얼마나 선명한지 몰라요. 진화론을 교육받으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는데...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어요. 우리가 타락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마치로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날 이후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됐다.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미있던지 하용조 목사의 창세기 강해 설교 전집을 듣기 시작했다.

“그동안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듣고 공부했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신 은혜가 정말 놀랍더라고요.”

떡볶이 선교사로 거듭나다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이 바뀐 그의 모습을 보고 놀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전하는 것보다 중요하지는 않았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도 배워야 했다.

“배워서 남 주기 위해 공부하고 있어요. 전에는 성공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남에게 베풀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성경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김상현 대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이후 더 바빠졌다. 매일 아침 큐티하고, 새벽예배 나오고, 주일은 물론이고 월요일에는 월요큐티예배, 수요일은 수요일예배를 드린다. 말씀과 예배가 끝이 없다. 출퇴근 길 차 안에서는 설교를 듣는다. 가맹점주나 사업상 연결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빼놓지 않았다.

“하나님 오늘은 누굴 만나야 합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저를 보내셨습니까? 오늘누를 누구를 위로할까요?”

지난해 회사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인생의 고난을 겪으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했다.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는 일도 더 잘하고 싶고, 크리스천으로서 올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크리스천으로서 선교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고 싶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과 구원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싶거든요. 떡볶이가 아주 좋은 선교도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세상에서 제일 긴 여행을 ‘30cm여행’이라고 합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을 일컫는 말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과 삶으로 행하는 것의 차이가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성 전체가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받아들이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들의 회개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감사하고, 찬양함이 마땅한데 요나는 기뻐하지 않았습니 다. 기뻐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분노했습니다. 니느웨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분노하는 요나의 모습이 대조됩니다. 이것이 요나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요나가 불쾌해하고, 분노하는 것은 여전히 미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모습이 매우 안타깝고 슬픔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 하셨지만 요나는 즉시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셨지만 요나의 마음속에는 불같은 진노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비단 요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겸손한 참회의 기도를 드렸는데 지금은 교만하게 고개를 뻗듯이 쳐들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는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지금은 자신의 생명을 거둬달라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지만 지금은 니느웨 백성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2장에서 요나의 기도를 거짓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진실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진실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죄악으로 인해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4장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를 가리켜 ‘영적인 유아로 회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도 영적 유아기 같은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분노한 이유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이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는 데 더디시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2절).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동정심이 많으시며, 진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서 더디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고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지만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로 뜻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6~7절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면서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 여호와, 긍휼하고 은혜로운 하나님,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며 수천 대에 걸쳐 긍휼을 베풀고 죄악과 범죄와 죄를 용서하며 죄지는 자들을 징벌하지 않고는 그냥 넘어가지 못하니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들과 그의 자손들에게 3, 4대에 걸쳐 징벌한다.’”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는 수천 대에 걸쳐 이어집니다.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시고 수천 대에 걸쳐서 인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징벌은 3, 4대에서 그치는 하나님입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요나는 이 사건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진노를 거두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머릿속에는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계시지 않았습니 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났습니 다. 요나는 하나님이 잘못하고 계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줄 의무가 없는 존재가 주는 것입니다. 은혜는 이 두 가지 조건이 합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다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에게 은혜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탕부 하나님(The Prodigal God)

최근 두란노서원에서 번역된 책 가운데 팀 켈러 목사가 쓴 <탕부 하나님(The Prodigal God)>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영어로 ‘Prodigal son’이라고 합니다. ‘방탕한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팀 켈러 목사는 그 단어를 하나님께 붙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을 나가 방탕하게 살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용서하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고, 용서하는 비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탕부 하나님(The Prodigal God)>은 그 비유를 해석한 책입니다. 그런데 왜 ‘탕부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왜 그 비유가 주어졌는가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에 불만을 가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환영하고, 잔치를 베풀고, 동네사람들을 초청해서 아들의 귀향을 환영하는데 그 잔치에도 들어가지 않은 한 인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그는 동생이 방탕한 삶을 살다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 다. 아버지의 용서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자신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 없이 순종하며 살았는데,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동생을 왜 받아들었냐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과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배가 고파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처절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받아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이미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보자마자 먼저 달려간 것입니다. 아들이 회개했다는 것을 듣고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끌어안은 것입니다. 입을 맞추고, 손에가락지를 끼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리처드 롱 브란트라는 화가는 탕자의 비유를 그릴 때 아버지와 아들을 끌어안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 그 옆 길목에서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노려보는 큰 아들을 그렸습니다. 이 비유를 잘 이해한 그림입니다. 방탕한 동생을 받아준 아버지는 팀 켈러 목사가 이 책을 붙인 것처럼 ‘탕부 하나님’입니다. 그 책에서는 이 비유를 현대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모차르트를 중심으로 아마데우스라는 희곡을 인용합니다. 모차르트는 일종의 방종을 일삼는 탕자입니다. ‘살리에르’라는 사람이 볼 때 모차르트는 형편없는 탕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성실하고 근면한 자신보다 모든 재능을 모차르트에게만 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데우스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사랑 받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 책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하나님께 재능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려고 본능적 욕망마저도 다 물리치고 있었건만, 모차르트는 약혼까지 한 상태에서 온갖 방종을 일삼는데 도 아무런 징계가 없었다!”

살리에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차르트에게 분노와 증오, 미움을 퍼붓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은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순서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큰아들과 살리에르와 같습니다. 아낌없는 사랑으로 니느웨를 대하시는 하나님께 반발하고 있습니다. 악한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불순종이 옳은 행동이었다고 합리화했습니다. 요나는 머리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지만 마음과 삶으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호와여, 이제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3절).

여러분, 사람들이 왜 스스로 죽겠다고 말하니까, 자신이 옳은데 받아들이지 않으니 죽고 싶을 만큼 괴롭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지금 그렇습니다. 구약에도 요나처럼 죽겠다고 아우성을 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아’입니다. 그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뒤 광야로 도망가서 차라리 자신을 죽여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고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엘리아를 아합과 이세벨에게 보내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아도 아합과 이세벨을 상대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받아들이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죽기보다 싫은 일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 때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확신하십시오.

요나와 엘리아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엘리아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쫓기지 않았습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는 것이 낫겠다고 했습니다. 요나가 왜 이 지경까지 갔을까요. 마음속에 있는 불의한 분노를 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는 의로운 분노가 아닙니다. 불의한 분노입니다. 의로운 분노는 절대 생명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의로운 분노는 사람을 죽게 하지 않습니다.

(13면에 계속)

추모시

그분은

그분은 죽기를 소망했습니다
육신의 고통 때문에도
사는 것이 힘들어서도
목회가 힘들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 나라를 너무나 사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더 오래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세상이 좋아서도
큰 교회라는 영광 때문도
명예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더 일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분은 사도행전 29장 쓰기를 소망했습니다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도
교세를 넓히기 위해서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이기훈 목사(사회선교부 본부장)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8월 2일 오전 Acts29비전빌리지 하용조 목사 기념관에서 하용조 목사의 사진, 주옥같은 메시지, 다큐가 영상으로 상영됐다. 추모객들은 하용조 목사의 삶과 신앙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영상을 보면서 고인을 다시 한 번 기억했다. Acts29비전빌리지에서 드린 추모예배에는

하용조 목사 가족, 당회운영위원회 장로, 98년 이전 장로, 교역자 및 교회 리더십들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용국 장로는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서 천국에서 하용조 목사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반태호 목사(방주교회)는 하용조 목사님이 우리 삶에 심어놓

은 삶과 가르침을 실천하고, 더 아름답게 열매 맺는 것이 진정한 추도”라고 설교했다.

저녁 7시 30분에는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추모예배를 드렸다. 하용조 목사 가족, 국내외 내빈, 성도 등 1천 2백 명이 참석했다. 당회서기 정과중 장로는 “하용조 목사님의 비

전처럼 온 세상에 사도행전적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한다”고 기도했다. 일본 야마토갈보리체플의 오오카와 목사는 설교에서 “하용조 목사님의 눈물과 통곡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확신했다.

/ 정현주, 이소정 기자

추모예배 설교 요약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3

반태호 목사
(방주교회)

목사님을 통해 교회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목사님은 누구보다 하나님과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무엇보다 몸 된 교회를 사랑했고, 복음과 선교를 위해

목숨을 거셨습니다. 누군가 목사님께 헌신이 무엇이나고 물었을 때 “나는 많은 집회 요청이 있어도 안 가지만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면 아프가니스탄도 가고, 두란노가 필요한 일이라면 아프리카까지도 갈 거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헌신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를 위해서라면 유명한 자리도, 큰 집회를 사양하고, 아무리 작고 힘들더라도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헌신이었습니다. 투석을 하면서도 그 작고 힘든 곳으로 달려갔던 하용조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목사님은 별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목사님을 사랑했기에 함께 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이제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별이 되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하늘에 계시기에 ‘다 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란 사람들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다니엘의 무덤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무덤에 가면 하나님의 축복과 신령한 은혜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우리 가슴 속의 별이고, 하늘의 별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소천 5주기를 맞으면서 ‘이제 더 이상 과거 속에서 목사님을 만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목사님이 우리 삶에 심어놓은 삶과 가르침을 실천하고, 더 아름답게 열매 맺는 것이 진정한 추도라고 생각합니다.

통곡과 눈물의 예언자

히브리서 5:7, 누가복음 6:35~38

오오카와 쓰구미치 목사
(야마토갈보리체플)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인이 저지른 일로 마음 아픈 것을 사과합니다. 두 번째는 일본 선교를 위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또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도 긍휼하라”고 하시며 네 가지를 강조 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눅 6:37~38).

이 네 가지가 하용조 목사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과 예수님의 체질과 성격을 닮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한번은 일본 교역자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일어나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저도 모르게 발뼉 일어났습니다. 저는 목회를 50년 동안 했습니다. 은퇴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용조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교회개척을 시작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의 눈물과 통곡의 기도가 반드시 이뤄질 것입니다.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하용조 목사 일대기

“하나님의 꿈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Acts29비전빌리지에 있는 '하용조 목사 기념관'의 콘텐츠를 새 단장했다. 그 이름만 들어도 그림고, 가슴이 찡한 하용조 목사의 삶과 신앙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꾸몄다. 하용조 목사의 청년시절, 가족, 온누리교회의 역사, 어록 등이 전시되어 있다. 그곳에 가면 하용조 목사를 다시 만날 수 있다.

/ 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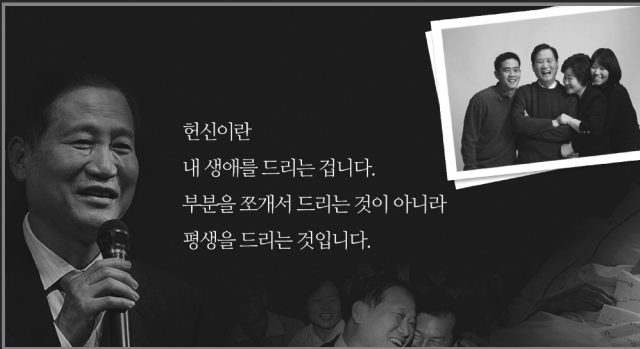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에 참여하며 끝없이 바라볼 의지가 없다면,
내 혀를 끊으시고 내 눈을 멀게 하옵소서.



‘병이 나를 좌절시키지 못했어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온누리교회를
하게 하셨어요.’



현신이란
내 생애를 드리는 겁니다.
부분을 쪼개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용조 목사 기념관

HA YONG JO MEMORIAL

1946. 9.20~2011. 8.2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고 전도이며 나아가
세계전교입니다.



믿음은 막연한 것 같지만
막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약속이요, 미래요,
축복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복음을 외쳐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보다 더 기쁠 수는 없다”

한강공동체 소망다락방, 지역사회와 교회를 위하여!

한강을 따라가다 보면 물줄기가 만나는 지점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이다. 한강과 남한강, 북한강이 만나는 곳이다. 남양주는 예로부터 강을 따라 교통이 발달했고, 산으로 둘러싸여 공기가 맑다. 자연을 닮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즈넉하고 여유가 느껴지는 곳이다. 지난 23일과 24일 한강공동체 소망다락방이 이곳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전도팀, 자선장, 어린이 체험학습장, 연합예배 등으로 지역사회와 교회를 위한 천국잔치를 벌였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한강공동체 성도가 교회에 놀러온 어린이에게 페이스페인팅을 해주고 있다.

지난달 23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이천만 광장에 주황색 티셔츠를 입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보였다. 한강공동체 소망다락방 지체들이었다. 이날은 한강공동체 소망다락방 소속 7개 순이 다 함께 아웃리치를 가는 날이다. 결혼 10개월 차 신혼부부부터 83세의 나이에도 젊은이 못지 않은 열정을 뽐내는 장로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했다. 말 그대로 주 안에서 하나 된 지체들이 함께 떠나는 아웃리치다.

목적지로 향하는 차량에서부터 분위기가 흥겨웠다. 저마다 싸운 김밥이며, 감자며 간식을 나눠먹으면서 아웃리치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쏟아내고 있었다.

“권사님, 전도팔찌를 채워주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게 어때요?”

저마다 생각해 온 전도방법을 이야기 했다. 전도팔찌도 그 중 하나였다. 그렇게 40여 분을 달려 목적지에 도착했다. ‘왜한도시 남양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는 팻말이 일행을 반겼다. 남양주(南陽州)는 ‘양주의 남쪽’이라는 의미다. 옛 양주군에서 분리된 행정구역이다. 경기 북부지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서울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도 많다. 인구증가 속도가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곳이라고 한다. 1인 가구가 거의 없는 곳이기도 하다. 가족 단위, 젊은 부부, 어린이가 많이 살고 있는 지역답게 아파트가 많고, 상가가 밀집되어 있다.

한강공동체 소망다락방 아웃리치 장소는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278 강변스포렉스 빌딩에 위치한 예봉교회다.

예봉교회 정민철 목사

예봉교회(정민철 목사)는 개척한 지 4년 정도 되었다. 정민철 목사가 2012년 11월 10일부터 섬기고 있다. 정 목사의 첫 번째 담임목회자다. 목회를 시작할 당시만 해도 정말 아무 것도 없었다. 정 목사는 남양주 ‘은광교회’에서 부목사로 오랫동안 사역했다. 일도 잘하고, 가정적인 남편과 아빠로 성도들과 가족들에

게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 정 목사는 나이가 들수록 안정적인 목회가 하고 싶었다. 자연스레 교회를 개척할 용기도, 도전정신이 부족해졌다. 다른 교회에서 청빙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정 목사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개척교회를 세우기로 마음먹었다.

교회를 새로 짓기에는 재정도 부족하고, 성도도 없었다. 거기다 건물주는 교회에게 상가를 임대해주지 않겠다고 엄포까지 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정 목사는 건물주를 찾아가 사정사정했다. 임대료를 절대 밀리지 않고, 다른 상가에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어렵게 건물주와 협의하고 예봉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정 목사는 사례비로 30만 원을 받은 적도 없다. 사무실에는 선풍기 한 대와 작은 노트북, 다년간 연구한 설교집과 자료가 전부다. 아끼고 또 아끼면서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까. 그러나 그는 한시도 미소를 잃지 않았다.

“재정이 없으면 누군가가 도와주고, 필요한 물품이 없으면 기적처럼 채워지더라고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지요.”

예봉교회에는 차세대들이 많다. 성인 성도는 10명 안팎인데 차세대는 40명이 넘는다. 차세대들을 위한 프로그램 덕분에이다. 예봉교회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주중 영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남양주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젊은 부부가 많고, 차세대와 학교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료 영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개 반으로 시작한 영어프로그램이 지금은 9개 반으로 늘었다. 40명이 넘는 차세대들이 주중 프로그램에 출석하고 있다. 정 목사의 사모는 영어를 잘 가르치는 강사 출신이다. 그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다. 따로 광고 하지 않아도 지역사회에서 입소문이 퍼져서 더 많은 어린이들이 찾아오고 있다.

“우리교회는 주일보다 주중이 더 바빠요. 교회가 이웃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열린 놀이터가 된 것 같아 행복해요.”

모두 하나 되어 벌인 천국잔치

한강공동체 소망다락방은 지난 5월 예봉교회에 처음 왔다. 사회선교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1다락방 1사역지’를 통해 연결되었다. 소망다락방 형세우 집사와 복명희 집사의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이 온누리교회와 예봉교회 사이에 다리를 놓았다. 2014년 겨울, 복명희 집사가 우연히 예봉교회에서 새벽예배를 드렸다. 그날 이후에도 집 근처에 있는 예봉교회에서 종종 새벽예배를 드리면서 사정을 알게 되었고, 한강공동체와 만남을 주선하게 되었다. 한강공동체 리더십들은 예봉교회를 일회성으로 끝나는 아웃리치 장소가 아니라 장기간 섬길 수 있는 사역지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 지난 5월부터는 일대일 제자양육을 예봉교회에 전수했다. 벌써 예봉교회 성도 3명이 일대일 제자양육 동반자반을 수료했다. 이번 아웃리치도 마찬가지다.

한강공동체 소망다락방 소속 지체들은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완수했다. 전도팀은 오전 10시부터 놀이터와 아파트 단지를 다니면서 전도했다. 한 손에는 전도지, 또 다른 손에는 전도팔찌와 전도용품 들고 참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유경원 권사는 교통카드 케이스를 뜨개실로 직접 만들어 왔다. 그 정성이 정말 대단했다. 홍매화 권사는 오색 빛 수세미 100개를, 이성미 권사는 구슬과 십자가를 엮어 복음팔찌를 만들어 왔다.

주방에서는 식당팀이 분주했다. 시원한 묵밥을 만드느라 여념이 없었다. 어린이들을 위한 떡꼬치와 소시지도 준비했다. 교회를 찾은 손님들에게는 비빔밥과 시원한 오이냉국을 대접했다. 한강공동체 리더십들은 아웃리치

두 달 전부터 예봉교회 주변 상인들이 판매하고 있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파악했다. 단 하루라도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웃리치에서 사용할 물품과 음식을 구입할 때는 예봉교회 홍보를 했다. 수박을 사면서, 주유소에서 차량에 기름을 넣으면서 “예봉교회에서 왔어요”라고 홍보했다.

자선장도 열렸다. 포장 한 번 뜯지 않은 주방용품도 있고, 시중에서 구입할 수 없는 고전 명화가 담긴 DVD도 100여 개나 됐다. 헬스기구, 외팔을 만드는 기계까지 없는 게 없었다.

자선장에는 활기가 넘쳤다. 5일장을 방불케 할 만큼 아마어마하게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다. 가격은 1천 원부터 1만 원까지였다. 가장 인기 있었던 물건은 주방용품이었다. 정지민 집사와 아들 민휘(초3)의 활약이 대단했다. 민휘는 “육식용 슬라이서 천 원! 컵 세트는 이천 원! 그릇은 삼천 원! 쌔니다! 싸요!”라며 목청을 높였다. 어른들에게 물건에 대해 요목조목 설명하고, 값도 흥정했다. 이번 자선장에서 민휘가 가장 많은 물건을 가장 빨리 팔았다.

어린이를 위한 체험학습장은 남양주 은광교회 전도팀과 협력해서 진행했다. 대나무로 활 만들기, 비누와 향초 만들기, 쿠키 굽기, 캐리커처, 페이스페인팅을 선보였는데 참가한 어린이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날 자선장과 어린이 체험학습장에 온 이들만 해도 400명이 훌쩍 넘었다. 전도팀은 54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도록 도왔다. 전도팀에게 복음을 듣고 그 다음날(24일) 주일예배에 나온 자매도 있었다.

한강공동체 소망다락방 남양주 아웃리치는 지역사회와 교회를 행복하게 만든 천국잔치였다. 한강공동체 소망다락방의 아웃리치는 끝났지만 선한 영향력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봉교회를 찾고 있다고 한다. 이보다 더 기쁜 일이 또 어디 있을까.

인천 WEB공동체 남아시아 I국



이여진 자매
(인천 온누리교회)

나는 1년 전부터 온누리교회에 다니고 있다. 인천에서 예배를 드리다 공부를 시작하면서 서빙고 1부를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러던 중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인 아버지가 내 곁을 떠나게 되었고 큰 슬픔이 찾아왔다. 준비하던 시험을 마치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할지 감조차 오지 않을 때 남아시아 I국으로 아웃리치를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무엇이라도 해야겠는데 그 시작을 하나님 일로 하고 싶었다. 도망치듯이 아웃리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출국 3일전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숨기고 있던 깊은 슬픔을 꺼내셨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복잡했다. 비행기가 착륙할 무렵 바라본 남아시아 I국 마을은 사진으로만 보던 우리나라 60년대와 비슷했다. 판자촌 마을이었다.

그때 주님께서 “네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슬퍼하듯이 이들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다”라는 마음을 주셨다. 나는 소중한 한 사람을 잃고 세상이 무너질 듯 슬펐는데,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 마음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느낄 수 있었다.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센터에 가서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는 말씀을 하셨다. 아웃리치 기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셨다.

이슬람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IS이고, 무슬림을 ‘잘못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선을 그어놓고 생각했던 나는 선교사님들의 강의와 현지에서 직접 보고 느낀 것을 통해 많은 것을 알게됐다. 기독교인임을 말하지 않고 무슬림을 직접 만나고 대화하고, 그들의 집에서 생활도 해보았다. 새벽 4시30분부터 하루 5번을 기도하고, 코란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성경을 대하는 나의 태도보다 더 경건했다. 또한 이슬람의 문화로 세계의 문화와 예술이 발전했다는 것을 알고 나니 그들의 진리는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그들의 삶이나 태도를 비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의 생각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만나셨을 때처럼 대해야 한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선교사님들은 예수님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진리를 인식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를 비판하기에 앞서 교회가 빛을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남아시아 I국에서 복음을 전한 WEB공동체 청년들

다. 그 이야기를 듣고 머리가 멍해졌다. 소돔과 고모라가 악인이 많아서 망한 것이 아닌 의인이 없어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 떠올랐다.

선교사님께서 나에게 “예수를 따르는가? 예수도 따르는가?”라고 물으셨다. 내 삶의 대부분의 가치는 예수를 따르지만 전부는 아니었다. 예수님의 빛으로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은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서 내가 바로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밝

은 빛이 있을 때 쫓아내려하지 않아도 어둠이 없어지듯이, 어둠을 쫓을 때에는 빛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삶으로 느낄 수 있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친히 응답해주시고,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피부로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린다.

갈렙공동체 독일



김선미 성도
(갈렙공동체)

갈렙공동체, 여호수아공동체, 선교사님 부부, 온누리교회 간사님 등 총 17명이 가나안 정탐꾼처럼 독일 땅을 밟았다. 목숨 걸고 유럽으로 넘어온 시리아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독일 땅으로 이끄신 것이 분명했다. 유럽 중에서도 독일이 시리아, 이집트, 이라크 등의 지역에서 온 난민들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 위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기회다. 선교적 관점으로 보면 어떤 위험과 외압 없이 무슬림들에게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 것이다.

우리의 주요사역은 베를린에 위치한 시리아 난민캠프를 방문하는 것이었다. 난민캠프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정은 방문해서 위로하고, 나자렌교회와 기독교음악밴드 ‘블루버드’와 협력해서 난민초청 찬양집회를 개최하는 것이 이번 아웃리치의 목적이었다.

이번 독일 아웃리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과 완벽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기도로 준

비되기를 원하셨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우상을 회개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난민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셨다. 우리는 시리아 친구들을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간구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주셨다. 난민캠프 방문과 찬양집회에서 성령 충만함을 풍성하게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시리아 친구들의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 집회 시작 때만해도 찬양가사를 불편해하던 그들이 어느 순간 우리와 함께 찬양하고 있었다. 블루버드 밴드가 그들 고향의 가요를 부를 때에는 단한 마음의 문을 더 활짝 열었다. 설교는 아브라함의 긴 믿음의 여행을 시리아 난민들의 여행에 비유한 말씀이 선포되었다. 그들이 독일로 오게 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메시지가 선포되자 눈물을 글썽이며 감동을 받는 모습이었다. 집회가 끝나고 몇몇 무슬림들이 성경에 대해 진지하게 물어보기도 하고, 자신의 가정을 다시 한 번 찾아와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교회에 진지하게 다녀보고 싶다는 고백도 들을 수 있었다. 귀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직접 목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뻐는지 모른다.

지금 유럽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는 테러와 난민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복음과 교회 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다. 시리

결국 복음과 교회 밖에 없다는 것을



베를린에서 열린 난민초청 찬양집회.

아 난민들은 독일의 재앙이 아니라 독일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부흥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이다. 테러와 싸우며 난민들을 품고 있는 독일과 독일교회를 위해 더 열심히 중보기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아웃리치 마지막 날 ‘월요촛불평화기도회(독일 통일의 구심점의 역할을 함)’가 시작된 성 니콜라이교회를 방문했다. 하나님께서 조국의 분단과 통일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 주셨다. 통일을 위해 상상 이상

의 대가를 기꺼이 치른 독일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크리스천으로서 반성하게 되었다. 우리가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게 되었다.

아웃리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장 선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진정한 교회공동체의 연합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보석처럼 반짝이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강남D공동체, 천국을 목도하다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고통한 생활을 선택하거나 목숨을 내놓아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곳에 다녀왔다. 차절하고, 슬프고, 괴롭고, 안타까운 사람들이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보석처럼 반짝이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의 밝은 표정에서 천국을 목도할 수 있었다.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이리진 강남D공동체 남아시아 B국 아웃리치에 동행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남아시아 B국은 빼어난 자연환경과 코끼리가 많은 나라로 잘 알려져 있다. 연평균 소득이 1,700달러로 남쪽으로 가난한 나라에 속한다. 우리나라 1980년대 수준과 비슷하다. 국교는 없지만, 주민 90%가 불교신자이다. 기독교인은 2%미만에 불과해 미전도종족으로 분류되지만 기독교가 전래된 지는 138년이 됐다.

1876년 한 선교사가 코끼리를 타고 S지역을 중심으로 남아시아 B국에 복음을 전했다. 강남D공동체가 방문한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다. 138년 전에 남아시아 B국에 처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곳이다.

남아시아 B국은 대표적인 기독교 탄압 국가다. 1975년 공산국가로 변모한 이후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시작됐다. 공인들이 구속되거나 지를 들추서 기독교인들을 색출했고,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전도를 한다거나 특정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김없이 총알이 날아들었다. 신앙을 지키려다 순교한 이들이 셀 수 없이 많다. 남아시아 B국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다. 불과 3년 전에도 현지인이 총탄 6발을 맞고 그 자리에서 순교했다. 남아시아 B국 기독교인들은 공인들의 끊임없는 감시를 받아야 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포기해야 한다. 남아시아 B국의 기독교인들은 교사, 경찰, 군인,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장사를 하거나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그 정도 또한 녹록치 않다. 땅이나 자본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힘들게 농사를 짓거나 품을 팔아도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한다. 그 척박한 환경에서도 138년 전 뿌린 신앙을 지키려는 눈물겨운 노력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강남D공동체 아웃리치에서 그 눈물겹고, 처절한 신앙을 목도할 수 있었다.

루카 형제처럼...

강남D공동체 아웃리치는 힘들게 신앙을 지

키나고 있는 보석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었다. 남아시아 B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A선교사 부부를 위로하는 것도 중요한 사역이었다. A선교사 부부는 3년 7개월째 이곳에서 두 공동체를 섬기고 있다. '소망, 사랑공동체'가 바로 그것이다. 소망, 사랑공동체는 일종의 기독교 마을이다.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숯, 양어, 양계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공동체 식구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소망, 사랑공동체에는 17가정 100여 명의 지체들이 생활하고 있다.

소망, 사랑공동체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증거다.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멀리 떨어진 주민들이 소망, 사랑공동체에서 신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로부터 존경과 부러움을 동시에 받고 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루카(가명) 형제다.

루카 형제는 태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S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가정교회들을 섬기고 있다. 이곳에서 사역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다. 누가 비밀공안인지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도들도 조심해야 한다. 루카 형제는 자녀가 3명인데 배를 꿰고 살았다. 하루걸러 하루를 굶을 정도로 사정이 궁핍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고,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잃어가고 있었다. 현지인들은 종교지도자를 '아간'이라고 부르는데 루카 형제를 '아간'이라고 부르는 주민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목회자로서의 권위마저 빼앗기고 있었다. 그러던 중 소망공동체를 알게 됐다. 온 가족이 소망공동체에 들어와 나무집을 짓고 생활하기 시작했다. 평일에는 숯을 만들고, 물고기를 키웠다. 주말에는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루카 형제는 소망공동체에서 조금씩 신앙을 회복했다. 궁핍한 주머니 사정도 조금 나아졌다. 소망공동체에서 생활한 지 2년 만에 번듯한 벽돌집이 생겼고, 오토바이와 트랙이 생겼다. 지역주민 모두가 루카 형제를 '아간' 이

라고 부르며 존경하고 있다. 지금은 소망공동체 식구들 모두가 루카 형제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물질적 축복은 덤이었다. 루카 형제처럼 소망, 사랑공동체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늘어 나면서 너도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포교가 강력하게 금지된 남아시아 B국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고 계셨다.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소망, 사랑공동체에서 생활 한다는 것은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선포하는 것이다.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다. 소망공동체의 리더 카오(가명)형제는 공안에게 이런 협박을 받은 적이 있다.

"이봐 총 6발 맞고 죽은 그 사람 알지? 너도 죽고 싶지 않다면 당장 신앙을 포기해." 그러면서 차가운 총구를 카오 형제의 관자놀이에 겨눴다. 죽을 수도 있는 그 순간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왜 죄냐. 할아버지부터 3대째 예수를 믿고 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죄라면 나를 죽여라."

카오 형제의 당당한 신앙고백에 공안들이 놀라웠다. 이렇게 대담한 신앙을 카오 형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소망, 사랑공동체 식구 모두가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 사랑공동체에는 예수 믿고 변화된 일가족이 생활하고 있다. 16년 전 어머니 차아(가명)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 자녀 10명 중 8명이 신앙을 갖게 됐다. 나머지 자녀 2명은 공안이다. 공안인 자녀들 때문에 강남D공동체 아웃리치팀이 사랑공동체에는 방문하지 못했다. 리더십 몇 명만 사랑공동체에 가볼 수 있었다. 그곳에서 차아의 여섯째 딸의 남편인 라오(가명) 형제를 만났다. 사람이 참 좋아 보

였다. 웃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은 27살 청년이었다. 라오 형제는 신학공부를 마친 '아간'이다. 그의 굳건한 신앙은 현지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정평이 나왔다. 차기 노회장 후보로 꼽힐 정도다. 나무로 열거설기 지은 라오 형제의 집 벽면 곳곳에 성경구절이 붙어있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를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권면합시다. 또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불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히 10:25)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 질 것이다." (요 15:7)

라오 형제는 날마다 필박 가운데서도 흠을 지지 않고, 모아서 고난을 견딜 것이며, 가정과 공동체를 넘어 남아시아 B국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다.

라오 형제의 그 고백은 소망, 사랑공동체 지체들의 고백이기도 하다. 소망, 사랑공동체에는 현지인 목회자가 4명이 있고, 신학생도 2명 있다. 그들은 매주 하나님이 필요하신 사람들을 찾아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고난이 끝나고 신앙의 자유가 찾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마을을 정비하고, 벽화를 그리고

강남D공동체 아웃리치팀은 보석 같은 사람들을 만날 생각에 들떠 있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소망공동체로 향했다. 소망공동체는 정말 외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 저 멀리서 나무 터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 자녀 10명 중 8명이 신앙을 갖게 됐다. 나머지 자녀 2명은 공안이다. 공안인 자녀들 때문에 강남D공동체 아웃리치팀이 사랑공동체에는 방문하지 못했다. 리더십 몇 명만 사랑공동체에 가볼 수 있었다. 그곳에서 차아의 여섯째 딸의 남편인 라오(가명) 형제를 만났다. 사람이 참 좋아 보

위한 선교센터를 건축하고 있었다. 선교센터가 완공되면 소망공동체 아이들이 영어공부도 하고, 성경공부도 할 예정이다.

강남D공동체 작업팀은 시설보수를 맡았다. 숯가루를 선교센터 바닥에 까는 임무가 주어졌다. 피악별이 내리쬐는데도 거침없이 삽질을 했다. 땀 뒤를 시간도 없을 정도로 열심히 했다. 매캐한 숯가루가 날리고, 온몸에 검댕이 솟아 묻어고 그저 행복했다. 강남D공동체 아웃리치 팀원 중에서 나이가 가장 어린 요셉이 (초등학교 4학년)도 힘껏 거들었다. 그 어린아이가 기쁜 마음으로 일하는 것을 본 어른들도 덩달아 신이 났다.

벽화팀은 선교센터 벽에 에텐동산을 그리기 시작했다. 페인트를 섞은 팔레트도 없고, 붓도 부족했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공사현장에 있던 거꾸로 팔레트가 되고, 나뭇가지가 붓이 되었다. 뜨거운 태양에 벽면이 한껏 달아올라 땀이 뜨거웠지만 누구 하나도 그리느라 손을 멈추지 않았다. 수개월 전부터 남아시아 B국에 에텐동산을 꽃피울 날을 기다려왔기 때문이다. 한쪽에서는 꽃을, 또 다른 쪽에선 나무를 그렸다. 작업속도가 어찌나 빠르던지 반나절 만에 하루 할당량을 마쳤다. 하루 할당량을 채웠다고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빗물로 움푹 파인 길에 자갈을 깔았다. 벽화팀은 반대편 벽에도 소망공동체 식구들이 주님바라기처럼 살라는 의미를 담아 해바라기 꽃을 그리기 시작했다. 차세대 특공대는 최고의 일꾼이었다. 한 삽이라도 더 뜨고, 꽃 하나라도 더 그리려고 애를 썼다. 아웃리치 첫째 날 작업이 끝난 뒤 차세대 특공대에게 물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작업을 했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다는 생각에 지치는 지 몰랐거든요"

그 먼 곳에서 여기까지...

마을 안쪽 벽돌집에는 의료사역팀이 임시진료소를 꾸렸다. 임시진료소를 찾은 한 주민은 70km 떨어진 곳에서 이곳까지 왔다. 남아시아 B국 주민들은 정상적인 진료를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의료시설이 빈약하고, 진료비도 비싸기 때문이다. 의료수준도 턱없이 낮다고 한다. 충치를 치료하러 치과에 가

면 말쑥한 생니를 뽑는 일이 흔하다고 한다.

강남D공동체 의료팀은 현지인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특히 내과진료소에는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기도로 진료를 시작했는데, 자연스럽게 손을 모아 기도하는 현지인들이 많았다. 윤원재, 허규연 성도는 환자 당 10-20분을 들여 꼼꼼하고 정성스럽게 진료했다. 행여나 더 아픈 곳이 없는지 두 세 차례 진단했다. 환자들 대부분이 무리한 노동으로 인한 질환을 앓고 있었다. 허리, 무릎, 손목 안 아픈 곳이 없었다고들 했다. 근육통, 감기 같은 가벼운 질환도 있었지만 당장 내원이 필요한 결핵, 만성간질환의 의심되는 사람들도 있었다.

꼭 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통역하던 B선교사의 눈에 이슬이 고였다. 진료를 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병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다. 치과진료소에서 7살 야고보(가명)가 치료를 받고 있었다. 야고보는 치과치료를 받으면 할라와 사람을 먹을 수 있다는 A선교사의 핏에 넘어가 썩은 이 3개를 발치했다. 치료를 마치고 나서 야고보는 배신감에 가득 찬 표정이었지만, 야고보의 손을 잡고 있던 가족들의 얼굴은 다없이 환했다. 야고보가 이가 아프다며 밤새 울어도 어찌할 방법이 없었는데, 아픈 이를 발치했으니 얼마나 활기분했을까. 야고보처럼 대부분의 아이들이 치아상태가 엉망이었다. 손을 댈 수 없어 발치하는 것이 최선일 정도였다. 양치질을 안해서라기보다 단 것을 너무 많이 먹은 것이 문제였다. 치과진료를 담당할 윤원성 성도는 "아웃리치를 갈 때 아이들을 위한 선물로 사탕보다 치약과 칫솔을 준비하면 더 좋겠다"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의료팀은 처방된 약을 제조해주고, 피스, 삼비약, 비타민 등이 동봉된 약품 꾸러미를 선물해 줬다. 의료팀이 현지인들에게 선물한 의약품 꾸러미에는 현지어로 번역된 약품 사용법이 동봉되어 있었다. 한국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의약품들이지만 그들에게는 귀히 여겨진 보물이니 다름없었다. 의약품 꾸러미를 선물 받은 이들 모두가 눈을 떴지 못했다.

진료를 받은 소감이 어떤지 물었다. 그의 대답을 들으면서 강남D공동체 아웃리치팀이 현지인들에게 어떤 선물을 줬는지 알 수 있었다.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소망공동체에 방문했습니다. 진료소까지 오는데 특이한 장면들을 봤어요. 외국인들이 길을 다지고, 벽화를 그리고 있더군요. 일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는 아이들도 많았고요. 저 사람들이 대체 왜 저러고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진료를 받고 돌아가는 길에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친구에게 물었더니 한국교회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하더군요. 그 먼 곳에서 우리를 위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천국잔치와 갑작스런 이별

아웃리치 둘째 날에는 소망공동체 식구들이 강남D공동체 아웃리치팀에게 받은 사랑을 고스란히 돌려주었다. 이른 아침부터 손수 키우던 돼지를 잡아 바비큐를 대접해줬다. 소망공동체 식구들은 바비큐를 일 년에 딱 두 번 밖에

에 먹지 못할 만큼 귀한 음식이다. 그 귀한 음식을 대접하는 소망공동체 식구들의 얼굴에서 반짝반짝 빛이 났다. 그렇게 대접받은 바비큐를 먹은 점심식사는 말 그대로 천국잔치였다. 비닐을 깔아 임시로 마련한 식탁 위에 빈틈없이 음식들이 채워졌다.

점심식사를 마치고는 마무리 작업을 시작했다. 단체사진을 찍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하려던 참이었다. B선교사가 다급하게 외쳤다.

"공안이 나타났어요"
지역을 둘러보면 공안이 소망공동체 입구에 나타난 것이다. 공안들이 마을 안쪽까지 들어와 강남D공동체 아웃리치팀원들을 발견하면 문제가 생길 상황이었다. 다급하게 철수를 시작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강남D공동체 아웃리치팀이 철수를 준비할 때 공안들이 마을 안쪽까지 들어오다가 중간에 나갔다고 한다. 그 흔한 단체사진 한 장 찍지 못했지만 모두가 안전하게 아웃리치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이 다행이다. 그렇게 강남D공동체의 남아시아 B국 아웃리치는 끝이 났지만 지금도 그들을 위한 기도가 이어지고 있다. 모두 함께 그 기도에도 동참하면 좋겠다.



한터, ‘제1회 북소리학교’ 개최

탈북민 자녀들의 생애 첫 여름성경학교



탈북민 어린이들이 여름성경학교에서 활동을 하며 해맑게 웃고 있다.

한터가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탈북민 자녀들을 위한 여름성경학교 ‘제1회 북소리학교’를 개최했다. 탈북민 자녀들에게는 생애 첫 번째 여름성경학교였다. ‘하나님이 내게 편지를 보내셨어요’를 주제로 진행된 여름성경학교 북소리학교

에는 8~11세 탈북민 어린이 20여 명이 참석했다.

허원희 목사는 ‘참된 천국잔치’를 주제로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친구와 이웃을 사랑하라”고 권면했다.

송초은 성도는 “이번 기회를 통해

탈북민 자녀들이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꼈다”고 했고, 양주희 성도는 “탈북민 자녀들을 위한 예배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21세기 순례자의 신앙, 영성, 메시지’ 집회

9월 2일 오전 10시, 서빙고 본당

‘21세기 순례자의 신앙, 영성, 메시지’ 집회가 9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른다.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목사)가 ‘천로역정의 기독교 영상’, 피터 모든 교수(런던 스필전대학)가 ‘존 번연의 순례자 영성’과 ‘스필전의 설교와 영성’, 이재훈 담임목사

가 ‘포스트 모던 필그림 영성’을 주제로 강의한다.

피터 모든 교수는 <천로역정>의 작가 존 번연과 스필전 연구의 최고 권위자이다. 회비 1만원(8월 27일부터 2만원).

문의: 02-2078-3456

www.biblecollege.or.kr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시니어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서빙고 9월 7일, 양재 9월 21일 개강

시니어 아카데미에서 하반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시니어 아카데미는 65세 이상 성도들을 위한 영성훈련 프로그램이다. 성경 속 이야기, 노년의 건강강좌, 교양 및 인문학, 사회적 이슈, 문화 활동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서빙고 시니어 아카데미는 9월 7일 오후 2시 두란노홀에서, 양재 시니어 아카데미는 9월 21일 드림홀에서 개강한다. 서빙고 회비는 3만원, 양재는 5만원이다.

문의 : 02-3215-3533(서빙고)

02-570-7438(양재)

‘문화미디어 중보기도예배’를 아시나요?

문화미디어의 회복과 군부대 복음화 꿈꿔

문화미디어의 회복을 소망하는 예배가 있다. ‘문화미디어 중보기도예배’가 바로 그것이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콘서트홀에서 예배드리고 있다.

문화미디어 중보기도예배는 2009년 SBS 이상호 PD를 중심으로 문화미디어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 5명이 모여 시작됐다. 지금은 전도사역본부에 소속되어 있다. 문화미디어 중보기도예배의 핵심 기도제목은 나라와 민족, 교회와 목회자, 문화미디어의 회복이다. 특히 문화미디어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넌크리스천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시대 문화미디어의 회복이 그만큼 시급하기 때문이다. 각 교회 캠프에서 미디어의

영적실상을 알리는 강의와 세미나를 하고 있다. 군부대 문화선교도 하고 있다. 1년에 5번 장병들을 대상으로 위문전도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장병 1,000명에게 간식을 나눠주고, 크리스천 연예인들을 초청해 콘서트도 한다.

장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있다. 1년에 2번 장교 100명을 초청해 2박3일 영성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9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문화미디어 중보기도예배에는 이 시대 문화미디어의 회복을 소망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화미디어 선교사들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다.

문의: 이상호 집사 010-3113-3738

■ 간증

“멈출 수 없는 이유”



이상호 성도
(가정사역공동체)

나는 지상파방송 PD로 일하면서 늘 문화미디어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 2009년 예수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이렇게 선포했다.

“하나님, 문화미디어 회복을 위한 중보기도 예배팀을 만들겠습니다!”

뜻이 맞는 사람들 몇 명이 모였다. 문화미디어의 회복을 위한 예배가 그렇게 시작됐다. 우리는 문화미디어 중보기도예배를 ‘미디어군대(Media Army)’라고도 부른다. 2009년 우연히 유튜브에서 본 영상에서 “마지막 때에 아시아에서 미디어군대가 일어나 영화와 음악을 통해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는 말을 듣고 미디어를 복음의 통로로 회복시키는 용사가 되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우리는 군부대 사역도 하고 있다. 7년 전 장병 1,000여 명이 모인 신병훈련소에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900여 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한 번은 토요일 날 포천 군부대에서 위문전도집회를 했는데 그 다음 날 군부대 목사님께 전화가 왔다. 장병들이 성당과 절에는 안가고 모두 교회로 왔다는 것이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역을 멈출 수 없다. 장병들뿐 아니라 장교를 위한 위문전도집회도 열고 있다. 미디어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 텔레비전, 컴퓨터, 핸드폰을 통해 하나님의 빛을 비춰야 한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 문화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녹여야 한다.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친히 행하실 것이다.

부천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참가자 모집

8월 28일부터 9월 10일까지

부천 온누리교회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에서 참가자를 모집한다.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4주 동안 진행된다. 자기이해, 부부대화, 부부의 성, 성경적 가정의 원리, 자녀교육 등을 주제로 강의를 이어진다.

1, 4주차는 토요일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 부천 온누리교회에서, 2, 3주차는 크라운해태연수원에서 1박 2일 동안 진행된다. 회비 30만 원.

문의 : 010-8268-4555

온누리 전도학교 11기 모집

9월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전도사역본부에서 ‘온누리 전도학교 11기 과정’ 개강을 앞두고 참가자를 모집한다. 온누리 전도학교 11기는 9월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10주 동안 서빙고 온누리교회 홍보관에서 진행된다. 매주 주일 오전 8시 50분부터 10시 10분까지 열린다. 온누리 전도학교에서는 ‘5분전도

훈련 매뉴얼’을 통해 개인 맞춤형 전도훈련을 받는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www.ion-nuri.org)이나 주일 서빙고 홍보관 앞에 설치되는 접수데스크에서 하면 된다. 회비 4만 원.

문의: 문쌍찬 팀장

010-4572-7373

온누리세라핌합창단 공개 오디션

8월 28일 오후 2시

온누리세라핌합창단이 공개 오디션을 통해 단원을 모집한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자유곡 1곡을 준비하

면 된다.

공개 오디션은 8월 28일(주일) 오후 2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1층 Acts29홀에서 열린다.

문의: 김희진 010 2561 8633

제1111호 | 2016년 8월 7일(주일)

■ 대전 유치부 캠프 간증



/ 김성미 성도(대전 온누리교회)

말씀화분과 기도매트

서울에서 대전으로 내려와 어느 교회를 다녀야 하지 몰라 방황하고 있던 중 수현이가 친구에게 “온누리교회로 와~ 재밌어!”라는 말을 들었다. 온누리교회에 가고 싶다는 수현이의 조름에 우리 가족은 대전 온누리교회 식구가 되었다.

“예배가 너무 너무 재미있다”며 주일만을 기다리는 수현이 덕분에 믿음이 약한 나도 매주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예배를 사모하고 순종하는 수현이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인 나의 믿음도 성장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수현이가 목 빠지게 기다리던 여름캠프가 다가왔다.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수현이는 여름캠프 출정식 때 여름캠프 주제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맨’으로 서게 되었다. 수현이와 나는 매일 매일 말씀을 암송했다. 어쩌나 열심히 암송했는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수현이 아빠도 말씀을 외울 정도였다. 말씀암송과 여름캠프 울동을 같이 연습했는데 울동곡을 동요처럼 흥얼거리는 수현이 아빠의 모습이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하나님께서 수현이와 여름캠프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주님 품으로 이끌고 계셨다.

여름캠프 첫 번째 날, 긴장한 얼굴이었지만

잔뜩 신난 수현이를 캠프에 보냈다. 수현이는 너무 너무 신나보였다. “매일 매일이 여름캠프였으면 좋겠다”며 그날 있었던 일들을 재잘 재잘 이야기하고, 찬양을 부르는 수현이의 입이 너무나 사랑스러웠다.

수현이는 여름캠프가 끝나고 말씀화분과 기도매트를 가져왔다. 그 말씀화분과 기도매트 덕분에 우리 가족의 신앙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 매일 말씀화분에 물을 주어야 한다며 열심히 돌보더니 4일이 지나고 싹이 났다. 유치원을 다녀온 수현이가 나를 급히 불러 가봤더니 말씀 화분에서 아주 귀여운 싹이 나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쑥쑥 자라는 수현이처럼 아주 귀여운 새싹이었다.

수현이는 잠들기 전 기도매트를 펴고 “하나님!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내일도 즐거운 하루가 될 수 있게 해 주세요. 우리 가족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한다. 우리 가정은 이번 여름캠프를 통해 매일 기도하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완벽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수현이는 기도매트 위에서, 나는 기도하는 수현이 앞에서 함께 기도한다.

■ 금요회복예배 회복소그룹 ‘기쁨의 샘’ 수료간증



/ L 자매

그날 이후

학교에서는 존재감 없는 아이로, 집에서는 부모님과 소통이 단절된 채로 공허함 속에서 10대와 20대를 보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도 취직했다. 그렇지만 어디에서도 환영 받을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한번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는 강렬한 유혹에 사로잡혔다. 깊은 우울증에 빠져있던 나는 어린 시절 의지했던 하나님이 생각났다. 무작정 주일에 온누리교회를 찾아왔다. 예배당에 앉은 순간 갑자기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다. 그날 이후 나의 삶에는 생명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공동체에서 사역을 맡게 되면서 다시 한 번 우울증을 경험하게 되었다. 동역자들의 피드백과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서웠다. 사역을 내려놓고, 일주일에 한번 예배만 드리게 되었다. 어찌할 바 모르고 일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러던 올해 2월14일 발렌타인데이 ‘기쁨의 샘’ 개강 안내 문자를 받았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모임에 참가했다. 첫 모임장소에 들어갔을 때, 마음이 시원해지고, 알 수 없는 평안함이 느껴졌다. 앞으로 금요일은 내가 회복되는 날이라고 선포하고 매주 회복예배와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사역팀에서 나눠준 회복, 창조, 타락, 구원, 성화의 말씀을 매일 생명줄처럼 붙잡고 묵상했다. 훈련받은 내용을 따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도해 보았다. ‘하나님 슬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와 같은 이전 대화량은 질적으로 달랐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다.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본래 모습에 자신이 없고, 사람들이 나를 알게 되면 실망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기쁨의 샘’ 모임에서 그것은 나의 본래 모습이 아니고 타락된, 일시적인 모습일 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기쁨의 샘’을 시작하기 전과 지금의 삶이 너무나 달라졌다. 특히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미움이 사라졌고, 대화가 시작되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관심을 가지니까 가족들도 나에게 대한 태도를 바꾸었다.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 이제는 자신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임마누엘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섬겨주신 소그룹 사역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일대일 제자양육 수료간증



/ 최병현 성도(SNS공동체)

의심에서 믿음으로

나는 원래 의심이 많은 사람이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도마와 같은 사람이었다. 의심하는 눈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었다. 창세기는 믿기지 않는 허무맹랑한 신화 같았고, 뉴스에 나오는 교회의 타락을 확대시켜 해석했다. 이 세상에는 제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없다고 회의적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의심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수록 내 영혼이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 그 때마다 교회를 더 부정하고, 영적 세상을 믿지 않는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그것은 소금물을 먹는 것 같았다. 계속 갈증이 났다. 갈증에 벗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일대일 제자양육을 신청했다. 나는 양육자님의 배려와 사랑을 통해 이해하지 못했던 교회의 부조리, 성경에 대한 의구심, 영적 갈등에 대해 답을 찾았고, 큰 위로를 받았다. 돌이켜보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은 결국 믿음, 소망, 사랑이었다. 나는 그것을 떠나서 답을 찾으려 했다. 나는 창세기를 믿지 않았다. 25년 동안 배워 온 진화론을 펼쳐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7일 만에 세상이 창조되고,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이 내게는 동화 속 이야기일 뿐 진실로 다가오지 않았다. 이러한 나의 생각을 양육자께 토로했더니 혼내기보다 창조과학에 관한 이야기와 관련 정보들을 알려주셨다. 그것이 내게 영적으로 큰 전환점이 되었다. 창세기를 믿기 시작하자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굳건한 믿음이 생겼다. 내 믿음의 근간을 흔들고 있던 쓴 뿌리가 뽑히는 순간이었다. 양육자님은 믿음뿐만 아니라 평소 내가 하고 있던 고민도 들어주시고, 기도해주셨다. 특히 취업문제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물질, 심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다. 나의 진로를 진심으로 함께 고민해준 양육자께 너무 감사했다. 또한 세상의 사건들에 대해 많은 생각들을 나누면서 영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다. 지난 6개월이 감사함으로 채워졌다.

일대일 제자양육 과정을 마치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동반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 갈 것이다.

■ 하늘공동체 아웃리치 간증



/ 김단비 학생(하늘공동체)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나는 남아시아 M국 아웃리치 신청하기 전까지 세상을 즐기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기에는 세상에서 노는 것이 너무 좋았다. 그렇게 지내다보니 마음속에 조금씩 허무함과 공허함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디 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고,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 수 있을지 막막했다. 그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가 해외 아웃리치였다. 변화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기에 바로 신청했다. 청년새신자수련회에서 만난 남아시아 M국 친구들은 너무 사랑스러웠다. 다들 표정이 매우 밝았고, 예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다가갈지 고민하고 있는 나에게 그들이 먼저 다가왔다. 내게 항상 웃고 있다며 ‘쿠씨’라는 이름도 붙여 주었다. ‘쿠씨’는 기쁨이라는 뜻이다. 그때서야 나도 손짓으로 소통하며 그들과 가까워졌다. 같은 조였던 한 친구는 자신의 형제가 일하러 한국에 간다고 했고, 또 다른 친구는 자신의 부모님 두 분 모두 돌아가셨다고 했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그런 일이 생긴 것만큼 걱정이 되었다. 가난하고, 힘들게 살고 있

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고 싶었다. 그러나 남아시아 M국에서 세례를 받으면 사회적인 핍박은 물론 직장을 얻기도 힘들다고 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편하게 신앙생활 해왔던 것을 회개했다. 나는 그들에게 현지어로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네가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어. 너를 위해 기도할게.”

그들은 “좋다”고 대답했다. 그 결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에 끝까지 기도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내가 변화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간 아웃리치에서 하나님은 나의 변화를 넘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다. 그들과 헤어지고 나서 그들이 혹시 나쁜 길로 빠지지 않는지를 걱정하게 됐다. 이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고, 그 크신 사랑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새삼 깨달았다. 세상 속에서 거룩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도 생겼다. 남아시아 M국에서 크게 쓰임 받을 친구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할 것이다.

장로칼럼

권사칼럼

아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한열 장로
(일대일위원회)

하늘과 땅에
오직 한 사람
나만을 위해
다가온 여인

천사인들
이리 고을까
선녀인들
이리 이쁠까
“내 뺨 중에 뺨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와를 본
아담의 고백이
내 것이로세
40여년 살아도
셀레이는 여인
이리 소중하고
저리도 귀한 내 아내

오늘은
어떻게 이뻐해 줄꼬
무엇으로 사랑해 줄꼬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사랑 타령이 내 것일세

하늘 은혜로
윤경과 한열 한 몸 이룸에
하나님 감사! 하늘에 영광!

이한열 장로가 아내 윤경 권사를 위해 지은 시. 어느 주일 날 열심히 섬기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저렇게 믿음 좋고, 아름다운 사람이 나의 아내’ 라는데 감동하고, 그런 아내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한없이 감사하며 족석에서 지은 시다.



정의숙 권사
(양천공동체)

나는 갱년기 이후 체력이 많이 약해졌다. 갱년기와 함께 부정맥이 생겨 심장이 쿵쿵 쿵쿵 뛰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누군가 함께 여행을 가자고 제안하면

두려움이 앞섰다. 그런데 남편이 이번 공동체 아웃리치에는 꼭 가야한다고 했다. 평소 전도학교 강의로 공동체를 섬기지 못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나는 5년 전 그곳을 방문했을 때 만났던 선교사님이 생각나서 건강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웃리치에 참석했다. 목적지는 동아시아 B국이었다.

우리 팀은 8명으로 단출했다. 비록 적은 수였지만 하나님께서 정예멤버가 모이게 해주셨다. 아웃리치팀에 꼭 필요한 분들이 모이게 하셨다. 준비모임에서 이미지 집사님의 인도로 함께 불렀던 찬양을 통해 팀원들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

지난 1일, 공항에서 팀의 안전과 동아시아 B국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비행기를 탔다. 이전보다 몸이 약해지면서 비행기 타는 것이 부담스러웠는데 남편과 옆 좌석에 앉은 집사님과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해 있었다.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준 선교사님은 5년 전 모습과 같았다. 우리는 바로 동아시아 B국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의 묘지를 방문했다. 신기하게도 그곳은 행정학교 내에 위치해 있어 안전하게 보전되고 있었다. 그것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선교사님은 그 나라 사람과 결혼했다. 선교사님 남편이 목사님이 되어서 가정교회를 섬기고

있었다. 그 교회의 비전은 네 가지였다. 첫째 죽어야 산다(요 5:24), 둘째 겸손하면 높아진다(벧전 5:5-6, 약4:6), 셋째 나눌 때 더 풍성해진다(행 20:35), 넷째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눅 13:30)는 것이다. 실제로 그 교회는 비전처럼 많은 이들을 섬기고 있었다. 소수민족과 한센인 부락을 돌면서 한센인 자녀들을 후원하고 있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마음에 큰 감동이 밀려왔다. 온누리교회가 세운 가정교회 같다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 주일에는 그 교회 식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가 섬기고 있는 고아원을 방문했다. 그 고아원은 장애인 어린이들이 생활하고 있었다. 선교사님이 늘 그늘진 곳을 바라보고,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교사님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사랑이 나에게도 물들기를 바랐다.

나는 아웃리치가 선교사님과 그 땅을 위해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몇 년 전 아웃리치에서는 아이들을 위해 무더위 속에서 땀 흘리며 밥을 하고, 페인트칠도 했었다. 그런데 이번 아웃리치는 달랐다. 우리가 선교사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김을 받았다. 그들의 삶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큰 감동이 되었다. 한편으로는 반기만 해서 마음이 편치 않았다. 떠나기 전날 저녁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마음을 아시고 선교사님을 통해 위로해 주셨다.

“양천공동체의 아웃리치는 제게 축복의 시간이고, 마음의 치유를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질문을 해주시며 사역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말씀이 떠올랐다.

“우리가 알게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신앙에세이

더 알아가고, 함께 고통 받고, 하나 되기를



허원희 목사
(한터 담당)

나는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기 전부터 북한 선교사가 되기 위해 WEC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다. 온누리교회에서 15년 동안 사역하고, 이민목회를

하다가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다. 돌아보면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들이 탈북민사역을 위한 준비단계였음을 느낀다.

북한사역을 오랫동안 해 오신 오대원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 오 목사님은 구소련이 패망하고 서구의 기독교 세력이 들어왔을 때 구소련 기독교 지도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셨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사역자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정복자로 들어오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많은 돈을 가져와서 곧

바로 큰 프로젝트들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자신의 야망을 만족시키고 자신의 개인적인 사역을 일으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한 부류는 종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들어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무엇을 행하시고자 하는지 여쭙어 봅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내가 알래스카에서 이민목회를 할 때였다. 한 성도님이 “서울에서 온 목사 한 사람이 우리 교회의 정복자로서 왔다”며 나를 공격했다. 당시 나는 그분의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 분이 이해가 된다. 아마도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내가 이민교회에서 큰 공로를 쌓은 뒤 서울로 돌아가려는 목회적 야망을 품고 있다고 오해한 것 같다. 그런 어려움을 겪어서일까. 한터를 담당하면서 큰 각오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종처럼 겸손하고, 함께 고통 받고자 하는 마음

으로 사역하리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한터에 와서 특별한 한 것이 없다. 탈북 청년들과 밥 먹고 가끔 기숙사에서 고기 구워먹고, 아침마다 탈북 사역자들과 큐티를 하고 있다. 기회만 되면 북한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보고 들었다. 그곳도 사람 사는 곳이고, 훈훈한 정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 때부터 탈북민들이 다정하게 느껴졌다. 북한 노래도 배우고, 국민체조 같은 율동체조도 배우며 함께 시간을 보냈다. 또한 시간만 나면 탈북민 지체들을 심방했다. 한 무뚝뚝한 청년이 기억에 남는다. 그 친구는 한터에서 인기도 많고, 리더십도 있는데 유독 나에게 인사를 안 하고, 늘 경직되어 있었다. 하나님은 내게 그 친구에 대한 각별한 마음을 주셨다. 하루는 그 친구가 사람들 앞에서 캔커피 하나를 사다가 주면서 “목사님만 드세요”라는 말을 남기고 휘 나가버렸다. 그의 친구들이 웃으면서 “저거 진짜 선물이에요. 꼭 드셔야 해요”라고 했다. 그때 마신 캔커피 맛

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탈북민사역을 하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가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일도 많고, 탈도 많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중독성 있는 사역임이 분명하다.

8월 말에 온누리교회 탈북민공동체가 제주도 수련회를 간다. 스태프를 포함하여 총 270명이 간다. 탈북민들이 비용부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예산을 후원받았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끌어주셨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한터 내부적인 정비는 물론 다른 캠퍼스 탈북사역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 ‘연합 탈북민사역’이라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졌다. 온누리교회 탈북민 사역이 새로워지고,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 날마다 그들을 더 알아가고, 그들과 함께 고통 받고, 하나 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한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요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질문

죽고 싶을 만큼 싫어하는 일이 있다면 마음속에 불의한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성령님이 계속 음성을 들려주셨을 것입니다. 요나가 분노 가운데 있을 때에도 성령님이 계속 그의 마음을 두드렸을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면 죽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그 길을 택하려는 것입니다. 그는 편협한 민족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는 요나를 품어주시고 교훈을 주셨습니다. 요나의 분노를 징벌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질문과 가르침은 사랑이 있을 때 나옵니다. 정말 싫은 사람은 내버려둡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그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짐으로 가르쳐주셨습니다.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4절).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교훈하십니다.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에 요나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불순종의 침묵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항변하는 고집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성 밖으로 나가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앉았습니다.

“요나가 성읍 밖으로 나가 그 성읍 동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곳에서 초막을 짓고서 그늘 아래서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5절).

요나의 행동을 보십시오. 니느웨를 하루 만에 떠났습니다. 하룻길을 여행하고 동쪽에 자리를 잡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멸망을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나가 동편에 앉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넝쿨을 준비하셨습니다. 넝쿨은 빨리 자라고, 잎이 넓어서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그 넝쿨로 요나가 시원해졌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넝쿨을 준비하셔서 그것이 요나 위로 자라나 요나의 머리에 그늘이 되게 하셨으며 그의 불쾌함을 없애 주셨습니다. 요나는 넝쿨 때문에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6절).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심히 분노하던 요나가 자신을 시원하게 해주는 넝쿨 하나로 심히 기뻐했습니다.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가르치는 방법이 참 유머러스합니다. 하나님이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보십시오. 폭풍이 나오고, 큰 물고기가 나오고, 넝쿨이 나오고, 벌레가 나옵니다. 뜨거운 바람도 나옵니다. 요나가 넝쿨로 인해서 심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서 넝쿨을 다 갉아먹게 했습니다. 요나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넝쿨이 없어졌습니다. 요나는 힘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죽기를 원했습니다.

“해가 뜨자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쪽 바람을 준비하셨습니다. 해가 요나의 머리 위를 따갑게 내리쳐서 그는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요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8절).

“그 넝쿨 때문에 화내는 게 옳으냐?”

이때 하나님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 넝쿨 때문에 화내는 게 옳으냐?’ 그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9절).

하나님의 질문은 넝쿨은 내가 심은 것도 아니고, 기르지도 않았고, 너희 것도 아닌데 넝쿨이 있다가 없어진 것을 보고 화를 낼 권리가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때 요나가 분노하면서 “화가 나서 죽을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요나의 밑바닥에 있는 분노가 솟아 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고갈되면 조그만 일에도 분노합니다. 모든 종류의 분노는 사실 하나님께 대한 분노입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의 원인을 가만히 보십시오. 화내지 않아도 될 것을, 점잖게 좋은 말로 할 수도 있는 것을 참지 못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분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넝쿨 하나가 있다가 없어져도 화가 납니다.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 화가 나 있는 것을 환경에 분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넝쿨이 없어지면 요나가 어떤 반응을 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좁은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12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기뻐하지 못하고, 넝쿨 하나에 잠깐 기뻐했다가 다시 분노하는 인간의 알팍한 마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좁은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과 요나의 침묵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넝쿨도 너는 아꼈다.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 하룻밤 사이에 죽어 버렸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오른손과 왼손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10~11절).

이 세 번째 질문으로 요나서가 끝납니다. 선지자 요나의 침묵으로 요나서가 끝납니다. 이 침묵은 반항에 가까운 것입니다. 요나의 침묵은 우리에게 공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변화하고, 회개한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요나처럼 우리도 내 가족과 우리 민족만 생각할 것입니까. 그렇다면 선교사님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선교를 불필요한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힘들게 한 민족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모두 요나의 좁은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도 요나와 같은 연약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찾기 위해서 그토록 기다리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투자하시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이 질문에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 교

스위스 기독교 어제와 오늘



세드릭 레소 성도
(프랑스어예배,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만나면서 아시아에 대한 부르심을 받게 됐다.

필자는 이 글에서 스위스의 기독교와 전통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스위스는 유럽의 가운데 위치한 작은 나라다. 인구가 8백만 명이 조금 넘는다. 프랑스의 기독교신학자 장 칼뱅이 입양된 곳이기도 하고, 종교개혁자 쾰리히와 적십자 창시자 앙리 뒤앙의 나라이기도 하다. 스위스는 보기 드물게 유대, 그리스도교의 과거를 간직하고 있다. 개신교의 로마라고 부

를 수 있는 제네바나 취리히, 로잔 등 수세기 전부터 세계 기독교 역사에 일획을 그은 도시라고도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정교한 시계, 초콜릿, 스위스 칼 같은 제품이 유명한 나라이기도 하다. 산과 호수로 이뤄진 이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세계 기독교에 이 같은 영향력을 줄 수 있었을까?

이곳은 과거부터 다수의 인구가 가톨릭이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화합을 지키기 위해 가톨릭과 기독교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애를 썼다. 그 결과 스위스의 26개 주중에서 13개 주는 개신교, 13개 주는 가톨릭을 믿고 있다. 제네바의 생 피에르 성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 예배라고 불린다. 제네바는 종교개혁 이전에 이름이 지어졌지만 종교개혁을 받아들인 곳 중 하나다. 지금은 개신교를 수용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독교식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것은 중요한 요소다. 스위스 복음주의 운동인 ‘로잔 운동’에는 스위

스에서만 25만 명을 넘는 사람이 모이고 있다. 스위스 인구의 3퍼센트 정도에 해당되는 수치다. 현재 이 로잔운동은 기독교인과 가톨릭이 종교의 벽을 뛰어 넘어 그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 추세라면 장 칼뱅이 설교하던 성당이 머지않아 복음주의 교회가 될 것이다.

1291년 최초의 스위스 연방이 건립됐다. 8월 1일은 최초로 서명한 세 개의 우리(Uri), 슈비츠(Schwyz), 운터발덴(Underwalden) 주가 평화 협정을 기원한 날이다. 당시 민중은 사회 고위층에 의해 핍박을 받았다. 그 고위층은 가톨릭 사제 층과 중세의 중앙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왕국 ‘합스부르크’ 왕조의 왕족들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농민층의 세 지도자가 인간의 평등과 자유, 평화를 우선시하는 협약으로 그들의 힘을 모으기로 결정하게 됐다. 이 연합에 하나씩 다른 주가 합세하면서 오늘날 26개 주가 모여 스위스가 만들어진 것이었다. 작은

나라에 4개 국가의 언어가 있고, 그에 따른 문화적 다양성이 존재하는 나라가 바로 스위스다. 이 단결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 령기에 스위스는 차별성을 존중하는 합의제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 예를 들어 스위스는 대통령이 없고, 7명의 수상이 존재한다. 스위스 군대에 장군은 없지만 4명의 대령이 있다.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 할지라도 그 결정은 그룹에서 이루어진다. 국민은 법 제정 매단계에서 개입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이렇다보니 스위스 사람들은 투표를 자주 한다. 투표 내용 또한 주간 노동시간, 상점의 개점시간, 혹은 새로운 터널 공사나 철로 개설처럼 정말 다양하다. 오늘날 스위스 사회의 변화는 신앙을 뒷전에 밀어두는 상황에 처해있다. 불행하게도 이 나라의 힘이 되었던 기반을 잃고 있다. 성경과 민주주의 위에 세워진 기반들이 안타깝게도 점차 잊혀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빙고 O2. 793.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3부 오전 11:30 본당 4부 오후 1:50 본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일본어통역 지원)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본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시 본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손정훈 목사 시간:매주일오전11:20 선교관101호 문의: 김국종 팀장(010-8885-6757)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정섭 팀장(010-3301-2897)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홀 문의: 박범식 팀장 (010-5225-1519) 야베스람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00~ 8:30 선교관 403호 문의: 윤영자 팀장 (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홀 문의 : 전도본부 (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홀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영선 팀장(010-3474-7635)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2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주일 오후 4:00 본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안산 – 주일예배 러시아예배 10:00 안산M센터 Onnuri hall 캄보디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Peace 302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2 몽골어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1 네팔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3 열방 예배 09:00/11:00 안산M센터 Manna hall 태국 예배 14:00 안산M센터 Peace 303 스리랑카 예배 11:30 안산M센터 Peace 304 베트남 예배 11:00 안산M센터 Peace 305 필리핀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1 다문화예꿈 10:30 안산M센터 Dream Kids Room 다문화 꿈땅 11:00 안산M센터 StarTree 다문화파워웨이브 14:00 안산M센터 StarTree 서빙고 몽골어예배 14:00 선교관 401호 러시아예배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랍예배 14:00 본관 B102호 매월 첫째주 선교관 402호 다문화꿈땅예배 15:00 선교관 403호 인천 몽골어 예배 13:00 프리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8:00 JDS홀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공자정 집사(010-5101-4613)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중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시:30~3: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오전 10시30분~12시30분	-서튼은행(010-9117-9325) -서빙고출발 09:00, 양재출발 09:30 -Acts29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서빙고 목요어머니 기도회 시간: 목요일 10시 30분 / 누리홀 문의 : 안민경 간사(02-3215-3523) 제 23기 전도폭발 훈련생 모집 기간: 주간반(8월 30일~12월 6일 매주 화 오전 10시 ~오후 15시) 저녁반(8월 31일~ 12월 7일 매주 수 오후 19시 30분~21시 30분) 장소: 콘서트홀 (신관 B2층) 회비: 7만원 / 하나은행 573-910007-31904 (예금주: 온누리교회 전도폭발) 문의: 김혜수 간사 02-3215-3214 에펠선교회 간사 모집 모집: 재정,행정 담당 자격: 재정 업무 유경험자(엑셀 프로그램 사용이 원활한 자) 서류: 이력서,자기소개서,신앙간증문,추천서 (담당목사,출입학교교수,전직장상사총택 1) 접수: ezer1995@daum.net 문의: 02-792-1628 사랑부예배 자막, 음향담당 모집 시간: 매주일 오전 9시, 콘서트홀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온누리M센터 건물 관리인 모집 근무: 온누리M센터(안산시 원곡동) 시간: 월~금, 오후3시~오후10시 우대: 전기, 소방 자격증 소유자 우대 급여: 추후 협의 문의: 윤용국 목사(010-9920-7019) 서빙고두란노서점본관 지하1층) 리뉴얼 공사 안내 시간: 매주일 오전 9시 콘서트홀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CMN 의료 BEE팀 이웃리치 봉사자 모집 일시: 매달 둘째주 주일 사역, 매주 화요일 기도모임 사역: 의료,미용,한방,진료지원,경로,아린이사역 회비: 1만원 대상: 의료 봉사에 관심 있으신 모든 의료인, 비의료인, 약사, 간호사, 청년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CMN 의료 BEE팀 서울역 노숙인 사역 일시: 매달 셋째주 목요일 오후 6시30분~9시 사역: 6시30분 부터 노숙인들과 예배, 7시30분~9시 의료 사역 대상: 의료인과 비의료인 모든분들의 손길 이 많이 필요 합니다.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양재 O2. 570. 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0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 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Rock 5세 ~ 초등1(충성홀 11:30) Jesus Crew 초등2 ~ 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 ~ 고등 (충성홀 9:00) 도곡교육관 주일 9:00 예배 성인예배: 사랑홀 (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 (한국어) 영아부: 도곡교육관 컴퓨터(B동 1층) 유치부: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11: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 (영어) Hope Zone(Newborn~Age4) :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교육관 컴퓨터(B동 1층) Joy Zone(Grades3~6) :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Middle School Group(Grades7~8)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High School Group(Grades9~12)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오후 1:30)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릴채년부예배:사랑홀(숙명여고대강당)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최재호 전도사(010-4336-3528)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vez (제라르 티네베)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3912-9393,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목상의집(WIN) 주일예배 일시: 매 주일 10시 남한산성 목상의집 *서튼은행(010-8870-9313) -양재역10번출구 9:00 출발(던킨도너츠) -북정역 2번출구 9:20 출발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배수연 간사(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김정숙 팀장(010-4946-3832)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양재 목요어머니기도회 목요일 10시 30분 / JDS홀 문의: 이현주 간사(02-570-7553) 도곡 어머니기도회 목요일 10시 30분 / 충성홀 문의: 이현주 간사(02-570-7553) 공사랑 회원모집 비전: 축구를 통한 선교 대상: 온누리교인 혹은 주변 믿지 않는 남편, 아들, 지인 시간: 매주 토 아침 9시~13시경 장소: 방배 혹은 서초동 구장 연락처: 오명석 총무 (010-6470-7131) Jesus Rock 유치부 영어 예배 교사 모집 모집: 아이를 사랑하고 영어 가능자 장소: 양재 온누리교회 충성홀 시간: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문의: 김희연 전도사(010-2034-8973)
---	--	--	--	---

부천 O32. 322.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7:00/2부오전9:00/3부오전11:30/4부오후 2:00/5부오후4:00(대청예배)/6부오후7:00(부흥예배) 새벽기도 월~토 오전5:20 본당 차세대 예배 영아부-오전9:00, 11:30 / 유치부-오전9:00, 11:30 유년부-오전9:00, 11:30 / 초등1부-오전9:00 초등2부-오전11:30 / 유초등부-오후2:00 중등부-오전11:30 / 고등부-오전9:0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심야예배 매주 수 오후 9:00 한사랑예배(탈북민) 매주 오후 2:00 3층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우) 매주 오전11:30 3층 꿈아이홀 어린이영어예배(JEM) 오전 9:00 비전홀	수원 O31. 895. 6500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 4부 오후 2:00 / 5부 오후 7:00 대학청년 주일예배 대학부 14:00 경찬홀, 청년부 15:00 사랑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온누리워십 매주 수 오후 7:40 차세대 주일예배 영아부 오전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오전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초1~3학년), 11:30(초1~2학년) 사랑홀 / 초등부 9:00(초4~6학년), 11:30(초3~4학년) 경찬홀 / 소년부 11:30(초5~6학년) 믿음홀 / 중등부 9:00 비전홀 / 고등부 9:00 믿음홀 영어예배 (어린이&중고등영어) 11:30 비전홀	대전 O42. 825. 3642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본당 /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오후 2시 본당 / 4부 오후 4시 본당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5 본당 토요새벽기도회• 매주 토 오전 6:0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주일예배 예꿈(36개월~7세) 오전 09:00 꿈땅(초1~초6) 오전 09:00 영아부 오전 11:30 유치부 오전 11:30 유년부 오전 11:30 소년부 오전 11:30 초등부 오전 11:30 중등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9:00	남양주 O31. 565.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09:00 본당 /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오후 2:00 본당 주중예배 온누리미션예배(인도, 네팔) 매주 토 오후 7:00 사이닝글로리 새벽예배(월~토)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복양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오전 11:30 2층 예꿈홀 유치부 오전 9:00 2층 예꿈홀 유년부 오전 9:00 2층 꿈땅홀 초등부 오전 11:30 2층 꿈땅홀 중등부 주일 오전 11시30분 기쁨홀 고등부 주일 오전 09시00분 기쁨홀	평택 O31. 651. 9680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오후 2:00 본당(대학청년)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온누리워십 수 오후 7:30 본당 How Mission 목 오후 7:30 비전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 오전 11:30 본관2층 꿈이지라는땅 오전 9:00 본관2층 파워웨이브 오전 9:00 파워웨이브교육관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20 본당 주일국제예배 몽골어 예배 11:30 드림홀 인도네시아어예배 11:00 인도네시아 쉼터	인천 O32. 437. 9686 주일성인예배 1부 오전 9시 컨벤시아 1층 113-115호 2부 오전 11시 컨벤시아 1층 113-115호 3부 오후 1시 컨벤시아 1층 113-115호 Web대학청년 오후 2시 프리스페이스 6층 차세대예배 -컨벤시아(오전11시) 영아부 102호 / 유치부 110호 유년부 107호 / 초등부 104호 -프리스페이스 6층 중등부 오전 11시 / 고등부 오전 9시 사랑부예배(장애우) 오전 11시 컨벤시아 1층 104호 주일국제예배 해탄리키즈어린이영어예배 13:00 컨벤시아 1층 111호 몽골어예배 오후 1시 프리스페이스 3층 수요오전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프리스페이스 6층 수요부흥예배 매주 수 오후 7:40 프리스페이스 6층	강동 O2. 475.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프라미스청년) 오후 2:00 본당 프라미스U대학부 오후 2: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주일) 예수님의꿈아이(영아부) 오전 11:30 기쁨홀 예수님의꿈아이(유치부) 오전 11:30 두란노홀 꿈이지라는땅(유년부) 오전 11:30 드림홀 꿈이지라는땅(중등부) 오전 11:30 사랑홀 파워웨이브 오전 9:00 두란노홀 사랑부 오전 9:00 사랑홀 주중 예배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20 본당 수요오전예배 오전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본당	양지 O31. 331. 8171 주일 성인예배 1부 예배 / 9:00 / 2층 김사무엘홀 2부 예배 / 11:00 / 2층 김사무엘홀 3부 두드림예배 / 14:00 / 지하층 박모세홀(대청) 주일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영어) / 11:00 / 3층 주선애홀 (영상중계) 예수님의 꿈아이(유아,유치) / 11:00/지하1층 무어홀 꿈이지라는 땅(유년) / 11:00 / 지하1층 위더스홀 꿈이지라는땅(중등) / 11:00 / 지하층 김보른홀 파워웨이브 / 11:00 / 지하1층 박모세홀 주중예배 새벽예배(월~토) / 5:20 / 1층 시안홀 수요선교예배 / 19:20 / 1층 시안홀
---	---	---	---	--	---	---	---

아버지의 마음으로 들려주는 결혼과 가정의 지혜

사랑하는 가족에게

하용조



사랑하는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십시오.



한 영혼을 향한 포기를 모르는 사랑의 삶을 살았던 하용조 목사
그가 전하는 지치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비밀

사랑받을 수 있는 비결이 아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비결,
끝까지 양육해 내는 지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가정을 주님 나라로 이뤄 드리는 꿈을 향해 나아가도록 권면한다.
그 권면에 주님의 깊은 위로와 격려, 진리의 힘을 얻게 될 것이다.

